

2022

D.MZ REPORT



**2030 공익활동가의
무장해제구역 D.MZ 스케치**

Index

01 Intro : 우리만의 무장해제구역	03
(1) 가을밤의 D.MZ 개요	04
(2) 기획의도: 연결, 환대, 해소	06
(3) D.MZ에 찾아온 사람들	07
(4) D.MZ, ready?	09
02 가을밤의 D.MZ 스케치	10
(1) 1장. 나, 너, 우리의 무장해제	11
(2) 2장. 우리들의 비영리	21
(3) 3장. 비영리 활동에서의 희로애락(부제: 그니까 번아웃)	31
(4) 4장. 이제 진짜 무장해제	43
03 Outro : 너와 나의 무장해제가 만들 특이점	52
(1) 성과: 환대로 시작된 위로와 연결	53
(2) 제언: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무장해제구역으로	58

* 본 리포트는 다음세대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2022 D.MZ 사업의 객관적인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자, 연구기관 “듣는연구소 협동조합”에서 2022 D.MZ 프로그램 중 가을밤의 D.MZ 참관, 여름밤·가을밤의 D.MZ 참가자 및 기획자 인터뷰 진행을 통해 기록·정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20~30대 공익활동가입니다. 신청해주신 참가자들이 공익활동가 중에서도 모두 “비영리 조직”에 속해있어,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solid green color. Overlaid on this are several large, semi-transparent geometric shapes in a light blue or cyan color. These shapes include a large circle in the upper left, a long, thin rectangle in the upper right, and a large 'V' shape in the lower half. The text 'Intro'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in a white, bold, sans-serif font. The 'o' in 'Intro' is a solid white circle.

Intro

우리만의 무장해제구역



우리만의 무장해제구역

근 5년 동안 20~30대의 일 경험을 분석하는 논의들은 참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늘 등장하는 키워드로는 조용한 퇴사, 번아웃, 수평적 조직문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생태계에 입문하는 20~30대 활동가들에게도 같은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활동가들은 어떤 고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스스로의 일을 소화해내고 있을까요? 한 청년활동가들의 인터뷰 기록집에서는 활동가들이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활동가를 “허허벌판에 선 작은 나무 한 그루”로 비유합니다.¹ 생태계의 외부인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부인과는 쉽게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는, 혼자 고립되기 쉬운 20대, 30대 공익활동가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표현이지요.

청년 활동가가 각각 홀로 서있는 나무라면, 이들을 모아 함께 울창한 숲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세대재단은 각자 외롭게 흩어져있는 2030 공익활동가들을 모았을 때 나올 이야기들과, 이들을 연결했을 때 발생할 시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무장해제되고, 이야기와 정보, 응원과 격려를 나누며 활동가들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듣는연구소는 동락가²에서 열린 **가을밤의 D.MZ**(이하 ‘데미’) 네 번의 모임을 관찰하고, 2030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무장해제구역’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
1. 서민영, 강필준, 백송이(2021). “요즘 것들 이야기: 청년 활동가 15인의 인터뷰와 FGI”. 2021 활력향연. 서울시NPO지원센터.
 2. 바보의나눔 지원으로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스타트업과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가을밤의 D.MZ 개요



- 대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20~30대 공익활동가
- 활동: 참가자끼리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대화를 나누는 네트워킹 모임
- 모임 기간: 2022년 9월 20일 ~ 10월 11일, 매주 화요일 19:30 ~ 21:30
- 회차: 4회차 (4회 참여 필수)
- 참가비: 10,000원 (4회 기준)
- 인원: 12명 이내 (추첨 선정)
- 장소: 동락가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2)

이 시리즈는 2030세대 공익활동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 비영리 생태계의 뉴플라이어들을 돕고 싶은 지원자/투자자
- 다음세대재단이 추구하는 비영리 생태계 조성이 궁금한 업계 종사자
- 함께 일하는 2030 공익활동가를 더 이해하고 싶은 동료나 상사
- 또래의 동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2030 공익활동가 당사자
- 2030 공익활동가의 일 경험이 궁금한 예비 활동가
-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기획자

진행의 흐름: 조금씩 더 깊어지기

가을밤의 D.MZ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이 자신의 무장(방어기제)을 한 겹씩 더 벗고,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서로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비영리 활동가로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비영리 활동을 하면서 겪는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비로소 완전한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총 4회차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가을밤의 D.MZ 진행일정

구분	진행일정	주제	해시태그
1회차	9월 20일(화) 19:30~21:30	나, 너, 우리의 무장해제 : 진솔한 대화를 위한 첫 소개의 자리	#무장해제 #서로알아가기 #오리엔테이션
2회차	9월 27일(화) 19:30~21:30	우리들의 비영리 : 비영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나를 이끄는 원동력	#숨통이트이는대화 #원하는주제 #한걸음더가까워지기
3회차	10월 4일(화) 19:30~21:30	비영리 활동에서의 희로애락 : 나를 기쁘고 슬프게 하는 활동 순간들, 그리고 번아웃에 대하여	#숨통이트이는대화 #원하는주제 #두걸음더가까워지기
4회차	10월 11일(화) 19:30~21:30	D.MZ와 함께한 한 달 나누기 : 나의 D.MZ 경험을 회고하는 시간	#데미회고 #안녕은영원한 헤어짐은아니겠지요

(출처: D.MZ 홈페이지)

기획의도: 연결, 환대, 해소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دم지를 기획한 호호와 수윳을 만나 기획의도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호호와 수윳은 2030 공익활동가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싶었다고 말합니다.

1. 연결되는 경험 - “동기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공익활동 생태계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20대, 30대 활동가들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소규모 단체들이 많은 비영리 영역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들 일터 안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연차 활동가가 스스로 일터 밖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청년 활동가가 혼자 고립되기 쉬운 공익활동 생태계 속,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또래의 동기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دم지는 출발합니다.

2. 환대의 경험 - “우리는 2030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2030 활동가들은 역량 강화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위치에 종종 놓입니다. 반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지원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뉴플레이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세대재단은 그 중에서도 2030 활동가들을 제대로 환대하는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응원의 마음은 دم지의 특별한 웰컴키트와 페어웰키트, 정성스러운 음식,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공간 곳곳에 담겨있습니다.

3. 해소의 경험 - “우리끼리 솔직하고 안전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수 있는 또래와의 연결, 그리고 그 만남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공간은 내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D.MZ는 2030 활동가들이 각자 힘들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비무장지대”를 의미합니다. 무기와 긴장을 내려놓은 공간에서 각자의 마음들이 일정 부분 위로되고 해소되길 바랐습니다.

D.MZ에 찾아온 사람들

D.MZ와 함께 일상으로부터 무장해제, 든든한 동료 만드 어요!

세상을 더 즐겁게,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숨가쁘게 활동하며 달리는 우리는 정작 잔뜩 쌓여있는 업무, 이게 맞나 싶은 나의 커리어, 복잡해져만 가는 인간관계, 당장 심폐소생이 필요한 통장 등등 우리를 둘러싼 고민과 걱정들로부터 즐거움과 새로움을 놓치진 않았나 싶어요.🌀

일상에서의 고민과 걱정이 단번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이러한 일상에서 무장해제되어 잠시 환기를 통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2022 D.MZ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20~30대 활동가들이 일상을 둘러싼 고민과 걱정으로 부터 무장해제되어, 또래 활동가들과 함께 일과 삶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모임입니다. D.MZ를 통해 다른 업계 사람들과는 부연 설명만 길어질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쉽게 나누고, 유용했던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 함께 더 멀리 나아가봐요~!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며 힘이 되어줄 동료들을 D.MZ를 통해 만나보세요!😊

D.MZ 참여자 모집 공고 문구 (출처: D.MZ 홈페이지)

기획자의 의도는 프로그램 모집 페이지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고민과 걱정을 혼자 앓고 있는 2030 공익활동가라면, 혹은 새로움과 환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데미에서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며 힘이 되어줄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답하듯 여름밤의 D.MZ는 열렬한 반응 끝에 신청이 조기마감되었고, 선착순 선정방식이 아쉬웠던 활동가들을 위해 가을밤의 D.MZ는 추첨을 통해 12명의 참여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을밤의 D.MZ에는 (운영진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2030 공익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별명 ³	직장 또는 하는 일
커피	청소년 미디어 비영리 단체
보리	공기업 공익재단
참새	국제개발협력 NGO
나무	국제구호 NGO(콘텐츠 제작 업무)
사과	사회혁신활동 지원 조직
열매	재단(공모사업 담당)
키키	사회복지현장지원 단체
대추	환경 관련 위원회
홍시	아동 대상 콘텐츠 개발
알밤	사회혁신 지원 재단
갈대	민간 비영리 재단
보름달	도서재단 사서
수윳	운영진, 가을밤의 D.MZ 진행
호호	운영진, 가을밤의 D.MZ 보조진행
모모	운영진, 가을밤의 D.MZ 보조진행

가을밤의 D.MZ 참여자 목록

직원 수가 2명인 소규모 조직부터 글로벌 NGO까지, 참여자들이 일하는 조직의 규모와 연차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직 유형 역시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비영리 재단이나 협회, 공익 활동 지원 센터와 같이 현장을 지원하는 유형의 조직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이 절반 정도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제는 사회혁신, 복지, 아동, 청소년, 국제개발, 환경, 지역 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 다른 현장, 다른 정체성의 조직에서 모인 2030 공익활동가들이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참여자들이 사용한 별명과 다름.

D.MZ, ready?

D.MZ 기획자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처음 만나는 참여자들이 덜 어색해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지를 거듭 고민했습니다. 나아가 참여자들에게 최고의 현대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안내메일부터 공간 인테리어, 웰컴키트, 회차별 주제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디테일을 섬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회차별 현장 스케치를 통해 참여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뎀지만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2030 공익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알아보고, 이들이 연결되었을 때 생기는 힘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참여자들이 사실은 혼자서만 서있던 나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함께 더 큰 비영리 생태계의 숲을 이루어나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지, 뎀지가 그 실마리를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며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1장. 나, 너, 우리의 무장해제

D.MZ(이하 ‘데미’)의 첫 번째 가을밤은 비무장지대에서 따온 이름에 걸맞게 ‘무장해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열 다섯 명의 2030 공익활동가들은 나이나 직업, 본명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다른 공익활동가와 만나고 싶어 화요일 저녁 동락가를 찾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공감대를 공유하고, 또 어떤 새로움을 서로 주고 받았을까요? 앞으로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섬세하게 준비된 무장해제의 기술들이 돋보였던 저녁, “긴장되면서도 편안한”(참새), “조심스럽지만 즐거운”(커피) 분위기가 오고 갔던 첫 모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 주제: 나, 너, 우리의 무장해제
- 1부
 - D.MZ, 다음세대재단, 동락가 소개
 - 웰컴키트 배포와 참여자 역할 정하기
 - 나를 소개하는 세 가지 키워드
 - 마니또 뽑기
- 2부
 - 대화 주제 정하기
 - 향후 프로그램 소개
 - 오늘 참여 소감 나누기

무장해제: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하기

동그란 테이블들이 동그랗게 놓여있는 거실에 가을밤의 D.MZ 참여자로 찾아온 2030 활동가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온 참여자들은 공간 한 곳에 차려진 음식들을 가져다 먹으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참여자들을 환대하는 동락가



웰컴키트

음식과 함께 준비된 웰컴키트는 앞으로 дем지에서 나눌 내 이야기와 감정들을 차곡차곡 끼워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D.MZ 다이어리**입니다. 상반기 화제의 드라마였던 '나의 해방일지' 속 주요 인물들이 사내 동아리에서 적기 시작하는 '해방일지'에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는 웰컴키트는 드라마 속 노트보다는 조금 더 발랄합니다. 한 칸에 놓인 '다꾸존'에 자유롭게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D.MZ 다이어리

가을밤의 D.MZ 스케치 - 1장

“데미지는 다음세대재단이 작년에 중부재단과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참가자 만족도가 거의 100% 나왔어요. 활동가들이 이것 정말 원하는구나, 해서 여러분과 올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수윳이 데미지와 다음세대재단에 대한 소개를 전하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안전한 대화를 위한 **약속문**을 나눕니다. 각자 마음 속의 무기를 무기창고에 보관해 놓는 **무장해제**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자들은 노래 한 곡을 들으며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걱정,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드는 괜한 불안감 같은 마음 속의 방어구들을 스티커에 적어 무기창고 판넬에 붙였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일종독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에서 끄집어 낸 무기들을 보며 수윗이 농담을 던지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슷비슷한 걱정거리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심감을 줍니다.



각자의 무기를 걸어놓는 무기창고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정할 순서**입니다. “데미는 운영진들만이 이끄는 모임이 아니라 참가자 한 분 한 분 모두 같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각자 모두 하나씩 역할을 맡아 주시면 좋겠어요. 선착순으로 분배할 예정이니 번쩍 손 들어주세요.” 슬라이드 화면에는 깨알 같은 역할들이 열 다섯 가지 적혀있습니다. BGM 담당, 단체 채팅방에 숙제 공지해주기, 뒷정리 돕기, 설거지, 활기차게 리액션 담당하기, 첫 번째 순서로 대답하기 담당 등,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들에 재빨리 손을 듭니다. 역할이 하나씩 배정될 때마다 서로의 배려에 대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자기소개: 2030 공익활동가들의 키워드

무장해제 후 이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준비해 온 세 가지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대답하는 역할’을 맡은 홍시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의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첫 만남에 먼저 말을 거는 ‘분위기 메이커’라는 홍시는 두 번째 키워드로 ‘치즈버거’를 뽑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로 초대 받은 갈대도 하늘, 여백, 누들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음식에 관심사가 생기면 얘기할 게 많더라구요. 차가운 면의 쫄깃한 식감이 좋아요.” 먹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공감의 반응이 여기 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참여자 15명의 닉네임과 키워드들은 각자의 개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취미나 취향을 꺼내는 이도 있습니다. 그냥 일 관계로 만났다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은 일면들은 호의에 기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제 키워드는 꾸준함이에요.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초중고 유치원 모두 개근했습니다. ”

- 참새 -

“ 저는 복싱하는 라이더. 복싱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있어서요. ”

- 나무 -

“ 모순덩어리?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점점 더 모순덩어리라고 느껴요. 사람 많은데 가고 싶은데, 가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에너지 많이 쓰고 싶지만 많이 쓰게되면 또 적게 쓰고 싶고. ”

- 대추 -

성격	내적 관중, 모순덩어리, 낮가리는 ESFJ, 꾸준함, 루틴 부자, 예민함, 분위기 메이커, 찐진심er, 웃음소리가 큰, 마음급한 슬로우워커, MBTI TF 사이 왔다갔다
좋아하는 것	가을, 치즈버거, 국수, 커피, 하늘, 여백, 캘리그래피, 운동, 복싱, 라이딩, 달리기
목표	마당있는 내 집, 평안, 갓생, 파이어족, 일상여행자
현재 상태	자취 초보, 상경 1년 차, 프로N잡러, 역C자목
일	사회혁신, 재단, 청소년, 콘텐츠 마케터, 국제개발협력,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기소개 키워드 분류

‘역C자목’이라는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라는 공통의 화두를 가져왔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공익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에 이른 은퇴를 청하는 파이어족을 꿈꿨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 웃음이 터집니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내 집, 내 삶의 즐거움도 챙기는 갓생, 일상을 여행처럼 재발견하는 태도 등, 경제적인 안정감과 심신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들도 두루 등장합니다. 꽤 긴 시간 이어지는 자기소개에도 모두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참여자들은 4주 동안의 비밀 미션이 될 마니또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쪽지에는 다른 참여자의 이름,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그에게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화기애애 했던 분위기에 마니또 뽑기로 장난스러운 긴장감이 잠시 감돌았습니다.

쉬어가기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참여자들은 곳곳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해도 낮설게 앉아있던 이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바뀐 것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역할을 맡은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대화와 연결은 시작됩니다. 곁들일 맛있는 음식도 물론 이 시간에 한 몫 했겠지요?



D.MZ의 케이터링

가을밤에 나눌 이야기들

첫 번째 시간은 진행자가 바쁜 날입니다. 수윗은 참여자들의 사전 신청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앞으로 남은 세 번의 저녁 시간에 댜지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2030 공익활동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네트워킹 자리에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비영리 일을 지속하기 위한 노하우**

- “애증의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 “비영리 일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 “일을 하는 데 힘이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 “비영리에서 일하면서 얻는 보상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 “갑자기 찾아오는 번아웃,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 **다른 활동가의 일과 삶 이야기**

- “활동을 하며 겪었던 인상적인 경험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 “서로의 일과 경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 “활동가들의 취미생활이 궁금해요-!”
- “업무 외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 “활동가들만의 제테크, 취미생활이 궁금해요”

- **비영리 생태계에 대해**

-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궁금해요!”

가을밤의 D.MZ 참여자들이 대화하고자 하는 주제

가을밤의 D.MZ 스케치 - 1장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주제는 (설명이 필요없는) “애증”의 비영리 일의 어려움을 둘러싼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잘 극복하며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비영리에서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걸까? 다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까? 우리가 속한 비영리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개인적인 이야기와 비영리 공통의 이야기, 20~30대 직장인들의 화두인 ‘번아웃’까지, 참여자들은 댜지에서 다른 이들의 솔직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댜지는 이에 맞춰 함께 각자의 일과 삶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조직을 벗어나 비영리 생태계를 그려보는 대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매 프로그램마다 공유하게 될 워크시트는 각자 취향껏 꾸민 **D.MZ 다이어리**에 담깁니다.



댜지 다이어리에 적은 세 가지 키워드를 공유하는 참여자

나가며

처음 만난 익명의 사람들과 만든 무장해제구역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지막 회고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서로 동그랗게 마주 본 채 돌아가며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긴장과 편안함.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도 있었지만 수윳님이 진행을 잘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참새 -

“비영리 섹터로 들어올 때 주변에서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때 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로 계속 이어왔고, 지금까지도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쁜이 아니었구나를 느꼈어요.”

- 알밤 -

긴장도 되었지만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소감이 낯선 사이지만 서로의 경험에 대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뎀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힘든 일’, ‘착한 일’로 통쳐지며 때때로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비영리 일에 애정을 품고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나가려 애쓰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첫 모임. 프로그램이 끝나자 뒷정리와 설거지 역할을 맡은 참여자들 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호호의 동락가 투어가 시작되며, 늦은 밤이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가을밤의 D.MZ 첫 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장. 우리들의 비영리

“오늘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가을밤은 참여자들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진행자 수윳은 이를 예고하는 듯한 말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30 공익활동가가 생각하는 비영리 생태계는 어떤 곳일까요? 이들은 왜 공익활동가가 되었을까요? 어떤 가치와 원동력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꿔나가는 활동’을 일로 삼도록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어려움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D.MZ(이하 ‘데미’)에 모인 공익활동가들의 다양한 답을 들어봅니다.

프로그램 개요

- 주제: 우리들의 비영리
- 아이스브레이킹: 무기 내려놓기
- 전체 대화: 나의 공익활동 그래프 그리기
- 그룹 대화
 - 나에게 있어 중요한 활동 가치
 - 활동의 원동력은?
 - 내가 꿈꾸는 비영리는?
- 회고

데미는 오늘도 약속문 읽기, 그리고 오늘의 대화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무기 내려놓기로 시작됩니다. 솔직해질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데미만의 두 가지 리추얼입니다. 소위 ‘공익활동가’라고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자리는 ‘나’의 입장에서 내 일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나눠 보는 자리입니다. 2030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의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참여자들은 ① **근무 환경**, ② **금전적 보상**, ③ **동료관계**, ④ **성장가능성**, ⑤ **직무에 대한 만족**.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된 오각형 그래프를 그려보고 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락가 곳곳으로 흩어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은 소규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익활동가라는 직업과 비영리 생태계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2030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나의 공익활동 그래프: 공익활동가의 일 만족도는?



비영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오각형

1. 금전적 보상&동료 관계: 아쉬운 월급, 좋은 동료들

“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근하고 주말근무하고 하다가 통장을 보면 내가 뭘하자고...[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동료 관계는 좋고 정서적으로 든든하고 지지가 되지만, 업무적인 만족도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

- 갈대 -

2030 공익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느낌은 다양했습니다. 애초에 비영리 영역의 일을 선택할 때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감수하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야근에 주말 출근,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면 허무함이 느껴지더라는 경험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라 이 정도 월급도 괜찮지만 몇 년 후 갑자기 아프다거나,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도 만족할 수 있는 액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나 사회안전망의 필요성도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게끔 해주는 건 내 옆의 좋은 동료입니다.

“ 나한테 중요한 건 동료예요. 최근에도 사람 때문에 이직했는데, 지금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분들과 일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고요. 금전적 보상이 좀 아쉬지만, 그걸 바라고 비영리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

- 나무 -

좋은 동료의 덕목은 다양했습니다. 단합이 잘되고, 팀워크가 잘 맞는 동료들, 일이 힘들고 조직 문화가 잘 맞지 않을 때에도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동료들, 배울 점이 많아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동료들. 그 중에도 크게 공감을 산 이야기는 나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의 활동을 인정하는 존재로서의 동료였습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진지하게 조직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동료를 만난 적이 없다는 커피의 말은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2장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재밌게 세상을 바꾸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알밤 -

“저는 이전엔 비영리가 아닌 곳에서 일하다가 이직했는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성장이나 조직의 성장 등에 대해서 이전 직장에선 동료와 이야기 나눌 일이 없었거든요.”

- 커피 -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동료들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으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영리에서는 우리 조직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회복탄력성이 있는지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돼요.”

- 사과 -

2. 근무환경&직무만족도: 자유로운 근무환경 vs 일인 다역

“근무환경은 100점. 제가 일하는 도서관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작업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 보름달 -

“제 직장은 얼굴에 피어싱을 달고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어딜 가도 이정도로 자유롭긴 어렵지 않을까요?”

- 사과 -

변화를 만드는 비영리는 개인의 가치관과 다양성에 열려있는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영리 생태계의 모든 조직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파트너십 속에서 활동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비영리 조직은 파트너의 문화에 맞춰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2장

“조직문화나 업무환경을 봤을 때 여기는 탑다운의 경직된 문화예요. 이전에 일하던 비영리 조직의 수평적 분위기와는 달라서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안했던 걸 하다보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있구나, 얻어갈 게 있겠지 하고 있어요.”

- 갈대 -

역사가 오래된 구호 단체나 글로벌 비영리 조직을 제외하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나선 많은 비영리조직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영리 기업에서는 별도 부서를 두어 전문화하는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각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이 제각기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다보니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서 하나의 일에서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다양한 일 경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획, 마케팅, 홍보같이 업무를 나눠서 설명할 수 없고 사실 상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홍시 -

“저는 지금 단체에서 근무한지 3년 2개월이에요. 1년마다 업무가 바뀌었어요. 다양한 업무가 좋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로테이션 되는게 어려워요. 나름의 불안함이 있달까.”

- 키키 -

그렇기에 조직 안에서 동료로부터 역량을 인정받고 각자가 맡고 있는 일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 공익활동가들은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매번 도전해야 하는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전문성을 잘 쌓고 있는 건지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업무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해서 좋기도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이 혼자 리드할 때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요. 좋으면서도 불안해요.”

- 보름달 -

그룹 대화: 내가 비영리에서 일하는 이유

템지가 가장 템지다운 시간은 사실 프로그램 시작 전 체크인 시간과 쉬는 시간, 그리고 끝난 뒤의 시간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장해제 된 참여자들이 동락가 곳곳에서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을밤, 공익활동 그래프 공유를 마친 참여자들은 지난 주보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간 쉬는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세 개의 그룹으로 흩어져,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와 내 활동의 원동력, 마지막으로 내가 꿈꾸는 비영리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1.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2030 공익활동가들이 각자 꺼내 놓은 세 가지 가치들은 대부분 ‘나’를 위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재미있는지, 마음과 몸은 건강한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되묻는 일은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비영리 활동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라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키워드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삶에서 확보할 수 있는 워라밸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재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니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재미를 추구할거냐라는 피드백을 하기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재미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일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일하는 환경이 중요해요.”

- 커피 -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가치 중에서도 나의 행복이 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가?를 늘 고민하고 되물어보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내가 행복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 모모 -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중요합니다. 비영리 생태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알밤은 꼭 무겁고 희생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방식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만드는 임팩트. 비영리에서는 뭐가 됐든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할텐데, 그 고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가. 결과물들이 항상 진지해야되고, 희생가치가 있어야 하는거라기 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고 지향하고 있어요.”
- 알밤 -

수윳 역시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나? 긍정적인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나? 사업 자체가 큰 혁신으로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있는 활동가분들을 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 수윳 -

‘균열’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서로 다른 결의 언어들이 대화에 섞이며 각자의 가치를 돌아보게끔 하는 건, 가치관과 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지향하는 일이나 방법론이 혁신의 실험론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소수자성에 관심이 있고, 젠더이슈, 장애인권 같은 것들을 알아가고 실천하고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사회를 이루는 두 축이 자본주의랑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 완벽한 건 없으니 좀 균열내야하지 않을까? 균열을 내고 싶어요.”
- 사과 -

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입을 모아 이야기한 가치는 ‘사람’과 ‘동료’였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의 존재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나 자신에 버금가게 중요한 가치인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2. 내 활동의 원동력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더 깊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치가 일터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라는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과 세상의 변화, 나의 일 사이에 연결감을 느끼는지 참여자

들은 서로에게 좀 더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키워드는 ‘인정’ 그리고 ‘피드백’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어느정도 받아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직이 3명뿐이라 서로 알아서 조심하는 편이에요. 인정과 칭찬은 헤드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칭찬해주는 경우를 거의 못봤거든요.”
- 커피 -

인정과 칭찬이 흔치 않은 것 같다는 커피의 말에 다른 참여자들이 격한 공감의 표현을 보냈습니다. 2030 공익활동가들은 ‘사람’과 ‘동료’를 거듭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내 활동 현장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가치있게 다가가고 인정받는 것이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겁나거나 어려운데, 그럴때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이들과 믿고 지지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름달의 말은 도전적이고 용기를 요구하는 비영리 조직의 일이 동료와의 깊은 연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영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현장의 변화를 발견할 때입니다. 비영리의 보상과 성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임팩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비영리 조직의 미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팩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변화의 기미는 갈 길이 멀어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발송한 뉴스레터의 피드백을 받을 때 기뻐요. 대체로 이용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을 때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힘인 것 같아요.”
- 나무 -

“지금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 사람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것이 보여요. 이전부터 봐왔던 기존의 도서관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끌려왔는데, 저희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오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 보름달 -

격려와 칭찬 뿐 아니라 예리한 피드백 역시 공익활동가가 큰 목표를 상기하고 질문을 갱신하면서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돕는 요소입니다.

“힘이 되는 요소는 평가 작업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나아갈 부분이 있거나 또는 좋은 피드백은 기분이 좋으니까. 비영리 활동을 하면 영리보다 더 많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돼, 될까? 질문을 더 많이 받는데, 그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어떻게? 무엇을?을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 알밤 -

3. 내가 꿈꾸는 비영리는?

세 번째 질문인 ‘내가 꿈꾸는 비영리’에 대한 생각은 하나로 모아지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적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부터, 과도한 행정업무의 축소까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오늘 비영리 생태계의 문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의견들이 오갑니다. 기본적으로 دم지의 대화는 개인의 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생태계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재 비영리 생태계에 뉴 플레이어로 진입하여 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적, 심리적 도전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끼리도, 사과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직 내 연대도 필요하고 조직 외에도 해당이 되고, 비영리에선 연대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을 같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파고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 참새 -

“영리추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까 비영리도 영리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믹스된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도 순환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됐어요.”

- 대추 -

“현재 비영리는 참여 시스템이 저조하고 탑다운 방식이 많아요, 포커스가 어쩔수 없이 기부자에게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룹이 점점 커질수록 행정업무, 서류업무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걸 주시하는게 미래의 비영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대추 -

나가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두 번째 가을밤, 2030 공익활동가들은 오각형 그래프 공유와 소그룹 대화를 통해 스스로없이 일과 삶의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제3자 앞에서 더 솔직하게 가면을 벗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뎀지만의 현대의 분위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앞에 있는 사람과 조금 다른 가치를 꺼내놓아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의로 다가가줄 거란 안전감도 이날 솔직함의 요인일 것입니다. 현대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참여자들의 말로 2회차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뎀지는 ‘해소’였어요! 지난 번에는 소규모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 나누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 홍시 -

“다시 한 번 비영리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전 사실 요즘 ‘왜 내가 비영리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업무하는 데만 급급했었지, 사람, 관계, 연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 참새 -

“우리의 동료는 멀리 있지 않았다! 다들 동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비영리 영역 안에서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알밤 -

3장. 비영리 활동에서의 희로애락 (부제: 그니까 번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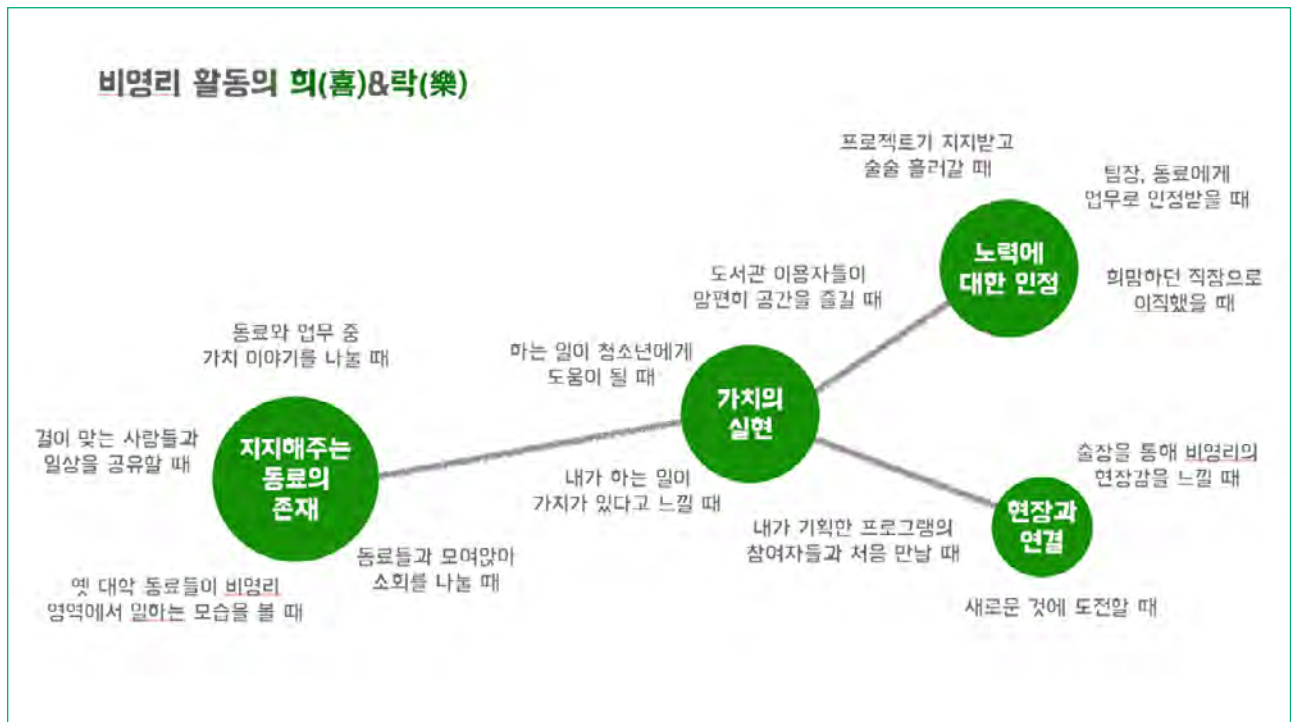
3회차 모임도 각자의 무기를 무기창고에 저장하고,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셋팅하며 시작합니다. 지연되는 일로 복잡한 머리와 개천절 연휴로부터 아직 남은 후유증을 무기창고에 걸어두고, 무장해제의 시공간에 들어옵니다. 사뭇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지난 회차의 여운이 남았는지, 오늘은 참여자 모두 깊은 대화에 어렵지 않게 바로 접속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 주제: 비영리의 희로애락(喜怒哀樂)
- 아이스브레이킹: 무기 내려놓기
- 전체 대화: 비영리 활동의 희로애락
- 그룹 대화
 -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어떤 상황에서 번아웃이 올까?
 -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전체 회고

비영리 활동에서의 희로애락

오늘은 각자가 느끼는 비영리 활동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숙제로 희/로/애/락 각각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적어왔습니다(숙제 수행률은 100%입니다). 수위의 진행에 따라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적어온 내용을 공유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회차에 언급되었던 이야기들이지만, 희/로/애/락 분류를 통해 참여자들은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희열과 즐거움, 분노와 슬픔의 순간들로 묶어보았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20~30대 공익활동가들은 무엇보다도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즉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청소년 일을 하는 데, 내 기획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발전이 되는 걸 볼 때 희열을 느껴요.”

- 커피 -

“저는 조금 특이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인데요. 저희 도서관은 되게 자유롭고, 아무 작업이나 가능하고 춤도 출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사서로서 도서관 이용자들,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셋팅된 도서관에서 마음편히 공간을 즐기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 보름달 -

“기획한 것들이 실현될 때.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네팔 아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었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 모모 -

가을밤의 D.MZ 스케치 - 3장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인정’과 ‘동료’가 활동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도 엄연히 ‘일’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일이 잘 풀리고, 내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일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참여자들은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에 대해 팀장이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희열을 느껴요.”

- 키키 -

“구독 중인 뉴스레터나 더나은미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주변 비영리 영역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가득하구나, 하고 느낄 때 신나요.”

- 갈대 -

“쿵짝이 잘 맞는 동료들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일하고 얘기하고 놀 때요.”

- 나무 -

“저는 원래 잘 우는데요. 뒤에서 혼자 울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울려고 해요. 사람들이 잘 했다고 지지해주면서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저의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꾸준히 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힘들 때 지지받지 못했다면 다시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 사과 -

“[‘락’의 순간은] 저에겐 뎀지예요. 수윗님이 시킨거 아니예요! (일동 웃음) 비영리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겐 즐겁습니다.”

- 참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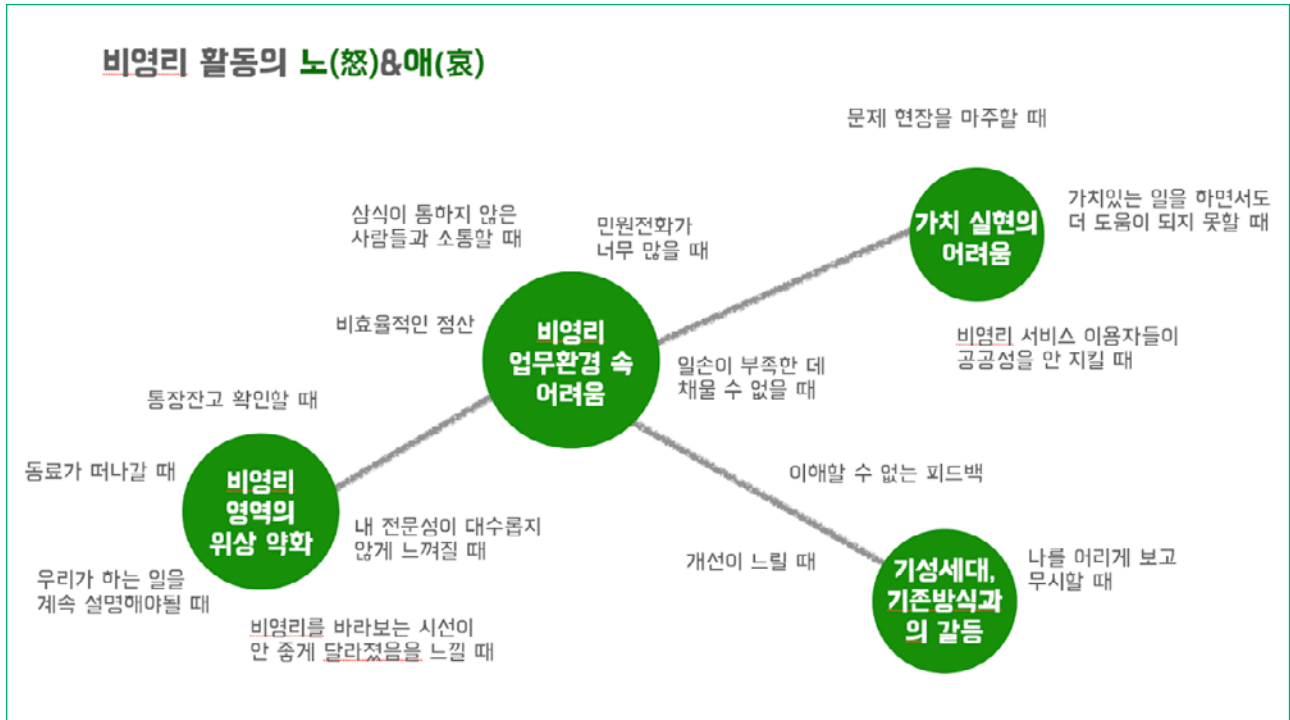
한 편, 가치를 추구하는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인 행복을 느끼거나, 현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낀다는 참여자들의 답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의 사무국에서 일하다보니 계속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감을 느낄 일이 적은 것 같아요. 출장을 가거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때 좋았어요.”

- 갈대 -

“저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라고 적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았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행사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의외로 좋았어서 기뻐던 기억이에요.”

- 알밤 -



비영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분노와 슬픔의 순간들은 크게 가치 실현의 어려움, 비영리 업무환경 속 어려움, 기성세대 또는 기존 업무 방식과의 갈등, 그리고 비영리 영역의 전반적인 위상 약화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슬픔을 경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변하지 않는 현장을 직접 마주할 때 느끼는 분노나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오는 무력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데요, 문제 현장을 마주할 때 가끔 정말 화가 나요. 얼마 전에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오시는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는데, [별로 바뀌지 않는 현실에] 갈 때마다 오열하면서 돌아왔어요.”

- 사과 -

가을밤의 D.MZ 스케치 - 3장

“저는 더 돕지 못할 때 무력감을 크게 느껴요. 저는 공익활동 생태계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 업무는 주로 홍보 위주였어요. 근데 저는 직접지원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 알밤 -

비영리 고유의 업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 나왔습니다.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참여자는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은 점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은 비효율적인 정산 시스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때 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끊임없이 피드백이 있을 때. 심지어 그 피드백 중 하나가 “우리스럽지 않다”(일동 웃음)일 때, 너무 답답해요.”

- 갈대 -

“비영리 단체는 보통 인원이 적어서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도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저를 어리게 보면서 “혹시 팀장님은?”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 알밤 -

비영리 생태계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어려움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은 월급을 확인할 때 오는 ‘현타’, 비영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자꾸만 떠나가는 동료들은 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우리의 일을 계속 설명해야하고, 전문성을 증명해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결국 피로가 쌓이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통장잔고 확인할 때... 솔직히 화가나고 일도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커피 -

“비영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더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 참새 -

“우리의 전문성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 사실 [한 영역에서] 5~8년차가 되면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마련인데, 비영리에서는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안타까워요.”

- 호호 -

비영리 활동의 기쁨과 즐거움, 분노와 슬픔의 순간들은 이어져있습니다. **가치 실현을 중요시하는 공익활동가들은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기뻐하며,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슬퍼합니다.** 공익활동도 결국 ‘일’로써 이해하는 2030 활동가들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중요시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잘 해내기 어려울 때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동료는 여러모로 지속가능하기 어려워보이는 공익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같은 비영리 영역이어도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조직에서 온 참여자들이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희로애락’ 속에는 비영리 생태계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공통적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오는 공익활동의 번아웃

비영리 활동의 희로애락을 펼쳐놓고 보니, 2030 공익활동가들은 영리영역의 청년 직장인들의 고민과 비슷하면서도 또 구별되는, 고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소규모 그룹 대화의 주제는 ‘**번아웃**’입니다. 참가자 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취합한 논의 주제들 중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20~3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자기자신에게 번아웃은 어떤 의미인지, 이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또는 극복해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익활동가에게는 **번아웃이 한 층 더 복잡한 이유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덤지 참여자들은 삼삼오오 나뉘어 번아웃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대 공익활동가들은 공익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갈 때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3장

“저는 급여는 적어도 가치를 쫓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일하던 곳이 인증기관이어서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추구했던,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 열매 -

“2년차 때 [청소년 대상] 수련회에서 일했는데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 뒤로 수학여행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300명 규모로 오던 팀들이 30명 규모가 되면서, 그동안 활동하던 사람들이 앉아서 매번 회의만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 때 저를 아끼던 선배가 해주는 조언도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 와닿지가 않는 정도였어요... 세월호나 코로나와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내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무력감이 심하게 왔었어요.”

- 커피 -

일의 의미에 대한 의문은 공익활동의 본질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직이나 혹은 그 이상의 커리어 변경까지 생각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아웃의 중압감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이직이 어려운 경우, 그냥 버티거나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리, 비영리라는 말은 비영리나 쓴다고. 회사는 그냥 회사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비영리가 뭘까, 비영리 조직이란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를 묻게 돼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저는 그냥 개인이 되어서, 내 성취감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채워야 하고, 회사는 그저 펍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곳이다 하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 갈대 -

“가치적인 핏이 안 맞으면 조직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직과의 컬처 핏(culture fit)보다도 벨류 핏(value fit)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벨류 핏이 안 맞는 동료들이 있는데, 힘들게 오기로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 사과 -

한 편, 작은 비영리 단체나 기관들은 업무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자체가 금전적인 수치 보다는 창출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가 명확하게 포지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소규모 비영리 조직들의 특성 상,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집중되면서도, 전체 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의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2030 활동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는 느낌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에 대한 피드백을 사람을 빙찌게 줄 때 너무 힘들어요. ‘니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걸 왜 미쳐 생각을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끔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반대의 의견을 내면 그건 ‘우리답지 않다’ 같은 말도 많이 들어요. 이런 피드백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고, 내 탓을 많이 하게 되죠. 업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오는 번아웃이 있어요.”

- 갈대 -

한 편, 작은 비영리 단체나 기관들은 업무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자체가 금전적인 수치 보다는 창출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가 명확하게 포지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소규모 비영리 조직들의 특성 상,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집중되면서도, 전체 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의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2030 활동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 마음의 베이스는 항상 일을 잘 하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일을 개척해나가야 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 호호 -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 키키 -

비영리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번아웃을 겪은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구분되는 조직의 구조에서 차별을 겪거나, 비영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커리어를 재고민하게 되는 경험은 번아웃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저보다 어린 사람이 과장이고 그랬죠. 근데 일은 정규직이랑 무기계약직이 똑같이 나뉘요. 심지어 정규직이 먼저 일을 가져가고, 남는 일을 무기계약직이 하는 형태예요. 거기에 저희는 보조적인 일도 해야하죠. 그럴 때 ‘이런 일을 왜 내가 해야하지?’ 싫어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 갈대 -

“저는 기부나 해외봉사를 하는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분야는 아니예요. 요즘은 코로나라 해외 교류도 덜해진 추세고, 사람들의 인식 속 국제교류 단체에 대한 비리나 오해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비영리를 떠나거나 사회적경제 같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분들도 생겨나는 걸 보면 [비영리 생태계 전반이] restructuring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어 힘들어요.”

- 참새 -

번아웃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하지만 모든 번아웃이 반드시 소진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참여자들은 각자 저만의 번아웃 예방법, 또는 해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소소하더라도 내 삶의 페이스를 되찾는 방법을 서로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저도 복싱 처음 시작한 게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체육관이 있어서 샌드백을 치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신나게 두드리고 오면 해소가 돼요.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꼭 하고 있어요.”

- 나무 -

“저는 사이드프로젝트를 항상 하고있어요. OO퀴어문화축제(이하 ‘퀴퍼’) 기획을 처음부터 회사 일이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퀴퍼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퀴퍼를 해야 회사 업무에도 열정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사이드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사이드프로젝트를 해야 환기도 되고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 사과 -

그러나 때로는 내 일상을 찾는 노력조차 버거울 정도로 쉽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3장

“저는 초기엔 운동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의 '쉼'이 아닌가 싶어요.”

- 키키 -

“주변에 부캐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비영리 말고 기술을 배워야 해요! 꽃꽂이도 배우고 커피도 하고 갈대공예도 하고... 부캐를 만듦으로서 일과는 또다른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취미이면서 특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걸 그만두었을 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보여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부럽고 해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돼요. 체력만 된다면 부캐 만들기도 해보고 싶어요.”

- 갈대 -

다른 참여자들은 지칠수록 비영리와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나와는 아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만날 때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외 비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세미나나 강연의 형태로 모일 기회가 많은데, 업무의 연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직장인 동호회나 취미모임에서는 영리나 더 다양한 주제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비영리의] 힘듦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고 환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 참새 -

“오히려 영리쪽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새로운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알밤 -

지금 번아웃을 겪고있는 것 같다는 참여자에게는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신박한 번아웃 극복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적당한 뒷담화가 필요해요. 최근에 한 정신과의사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적당한 뒷담화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감해줄 수 있는 동료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의 적당한 뒷담화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갈대 -

“이직 시도해보기! 진짜 이직까진 못하더라도 오렌지레터⁴에 마음에 드는 공고 보면서 거기서 뜨는 인재상, 채용 조건들을 확인해보고 자기소개서 써보는 단계까지 가보지요. 자소서 쓰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정리해볼 기회도 되고...”

- 사과 -

“저도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무의미해질 때 공고를 보면 ‘아, 출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안이 되더라구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이직에 도움이 될건지도 한 번 돌아켜볼 수 있고.”

- 열매 -

그러나 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비영리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번아웃을 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어 해소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분명한 지적이 남았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너무 좋지만, 리더들이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결국 리더들의 문제가 아닐까?도 싶어요. [번아웃에 비해] 최고책임자들의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주제들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노력하는 건 그에 비해 미약한 저항처럼 느껴지거든요.”

- 사과 -

4. 공익활동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모아서 보내주는 뉴스레터. 슬로워크 운영.

나가며

번아웃은 너무도 뜨거운 주제여서 그룹마다 시간을 초과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진행자 수위가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어지는 진행에 양해를 구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임에도 참여자 대부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몰입도가 높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락가는 어느새 깊은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시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공감과 경청의 시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번아웃을 대비할 힘을 얻었다며 2회차 때 보다는 더 힘을 주어 회고했습니다.

“어, 나 그 때 번아웃이었나? 모르고 지나왔던 것들이 사실 번아웃이었던 것 같고, 내가 그걸 스스로 어떻게 극복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 커피 -

“이제 번아웃도 두렵지 않다! 번아웃이 온다면 ‘오늘 공유된 꿀팁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겠군!’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 나무 -

“오늘은 시골 오두막에서 지내는 밤 같았어요. 3~4명씩 각각 방에 들어가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걸 회고해보니 시골 오두막에서 옥수수 먹듯이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 모모 -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또래 동료들과 공감의 순간에 와닿기를 바랐던 기획의도가 잘 실현되었던 세 번째 가을 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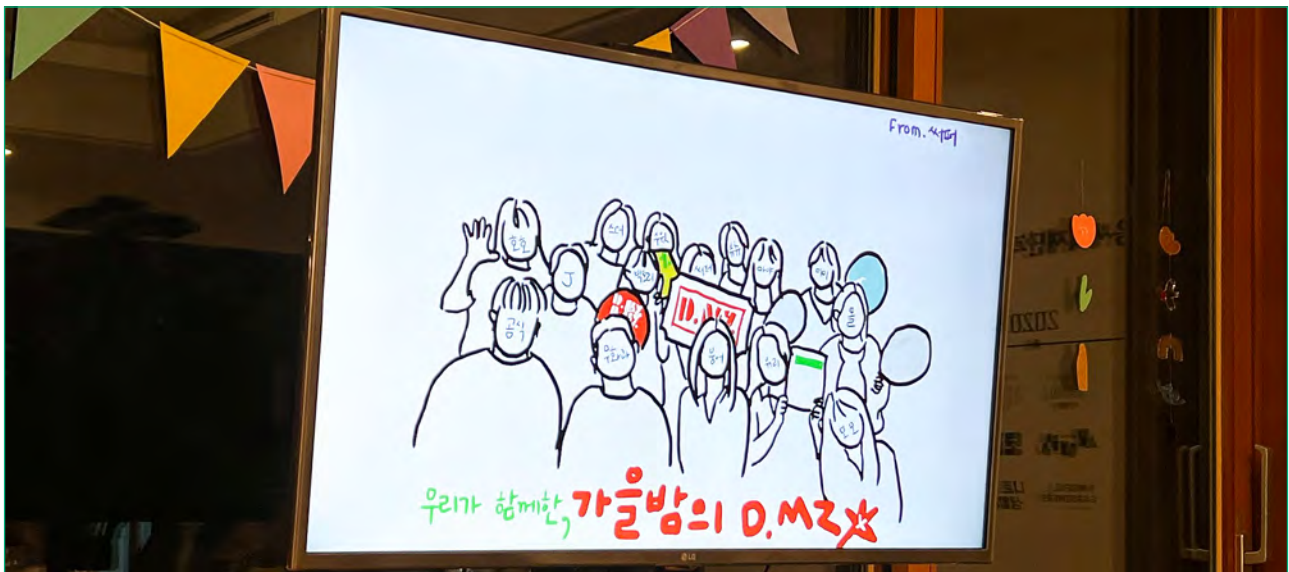
4장. 이제 진짜 무장해제

어느덧 벌써 마지막 회차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빠지는 업계 특성 상, 출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평소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시작도 전부터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참여자들이 보입니다. 진행자 수윳은 참여자 개개인의 특징을 세심하게 캐치하여 말을 건넵니다. (“OO님, 머리 자르셨네요!”, “OO님은 아프셨던 건 괜찮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개근이신데요? 다 같이 박수!!”) 자연스럽게 풀어진 분위기 속 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무기를 내려놓으며 네 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 주제: дем지와 함께한 한 달 나누기
- 아이스브레이킹: 무기 내려놓기
- 숙제: 한 달간의 дем지 참여 소감, 또는 나에 대해 더 공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유 발표
- 시상식과 기념품 증정
- 전체 회고

조금 더 사적인 관계로의 경계 넘기



오늘은 참여자 모두 돌아가며 한 달간 가을밤의 D.MZ(이하 ‘데미’)에 참여한 소감 또는 나에 관해 더 공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 자주 가는 가게,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 내가 구독 중인 뉴스레터를 PPT 자료까지 준비해와서 성심껏 공유합니다. 한 참여자는 “아직 깊게 이야기를 못 나눠본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아쉬워” 아주 디테일한 자기소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막간을 이용해 홍보하고, 또 일터 밖에서의 자신의 관심사나 성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4장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러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서로의 취향과 성향을 더 깊게 알게되며 한 층 더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의 관계들을 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보다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살짝씩 엿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성수에 스탠딩 에스프레소바가 생겼는데, 커피님 커피 좋아하시면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 나무 -

“호호님 일상 아카이브용 인스타그램은 팔로우가 가능한가요?”

- 커피 -

몇몇 참여자들은 네 번의 모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자신만의 서사로 묶어내었습니다. 나무는 뎀지를 “막힌 내 마음을 풀어준 ‘소화제’”로 빗대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그린 뎀지 비포애프터(before & after) 그림에는 부담/책임/해야할일로 가득했던 before의 모습과, 용기/공감/동료로 둘러싸인, 소화제 먹고 속이 편해진 after의 모습이 있습니다. 키키는 뎀지에 참여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차별로 “소진과 권태 → 환기와 자극 → 위로와 공감 → 인정과 기회”로 정리했습니다. 뎀지를 함께해준 이제는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뎀지를 “결국 다시 사람으로 힘을 얻어가게 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나무의 가을밤의 D.MZ 발표자료

한 편의 글로 소회를 정리해온 참여자도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감명받았다”며 놀라워한 사과의 글, <DMZ와 D.MZ>의 일부분을 발췌합니다.

무장을 해제하자는 모임이 있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하는 20~30대 젊은 활동가들이 한데모여 공감과 지지를 얻는 모임이라고 했다. 최근에 커뮤니티 스터디도 진행했고, 커뮤니티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쯤은 호기심에, 반쯤은 의무감에 신청했다. 모임 이름은 D.mz란다. 비무장지대와 mz를 교묘하게 결합한 말장난이 마음에 들었다. 무장이 일상화된, 이상화된 영역에서 비무장이라니.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장소이지만 그 밖의 다른 온갖 장소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전복시키는 장소를 ‘헤테로토피아’라고 푸코는 제안했다. 전쟁 속에서 비무장을 기치로 하는 DMZ나 일상과 다르게 비무장을 해보자는 D.mz가 꼭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 생각했다.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만, 내 몸과 사유를 넘어 타자와 연결되는 이상을 꿈꾸는 곳. 평소와 같은 일상의 날이지만,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곳. 같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

참여자 저마다의 특색이 드러났던 발표 후 이어진 쉬는시간에는 모두가 명함을 주고 받으며 본격적으로 익명성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1회차 때 보였던 ‘낯섦’은 사라졌고, 이제는 나를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동락가가 비로소 무장이 모두 해제된 시공간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 친밀해진 관계들이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가을밤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대 속에서 작별하는 법

수잇과 호호는 뎀지를 끝까지 한대의 경험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회차에도 다양한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오늘 동락가 한 쪽 벽면에는 1~3회차 동안 참여자들을 찍은 사진들을 모두 출력하여 붙여놓은 **추억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원하는 사진을 가져다가 그 옆 ‘다꾸존’에서 자신의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D.MZ 추억존



모두를 위한 시상식 진행 사진

수윗은 1회차 때 받았던 **마니또 미션 체크 시간**을 잊지 않고 진행합니다. 물론 마니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키키의 마니또였던 보름달은 키키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알아내기 미션에 실패했는데, 한 번도 같은 그룹이었던 적이 없어서 같이 말을 나눠볼 기회가 적었다며 “구질구질”(보름달의 표현) 변명을 해서 모두를 웃깁니다.

이어서 열심히 참여한 **모두를 위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에너지이저상, 소통대마왕상, 리액션이환상... 모두가 한 자리씩 상을 차지하게 되는 훈훈한 밤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것은 참여자뿐만이 아닙니다. 갈대는 뎀지를 마련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상”을 미리 준비해와서 수윗에게 직접 시상합니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기획의도가 다시 한 번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들은 뎀지가 “치유와 쾌유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편백나무 룸스프레이를 **기념품**으로 나눠줍니다. 선물과 인정, 고마움이 오가며 마지막 회차가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여운은 연결을 남기고

호호는 오늘이 나와 그동안 가을밤을 함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본캐가 드러났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더 알게 된 순간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서 약간 아쉽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수윳은 뎀지가 "차려 놓은 판"에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차도 2회차로 진행했던 전년도에 비해 4회차로 늘렸고, 다시 만날 명목을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 '후속모임'을 위한 장치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친구나 동료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뎀지가 끝난 이후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은 후속모임에 참여하거나, 번개식으로 열리는 'D.MZㄱㄱ?(뎀지고고?)'에서 동료 공익활동가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후속모임

뎀지 참여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기획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 여름밤의 뎀지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독서모임, 연극·뮤지컬 관람모임 및 가을밤의 뎀지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연차소진모임이 각각 4~6명의 규모로 운영되었음.

D.MZㄱㄱ?(뎀지고고?)

번개처럼 열리는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20~30대 또래 활동가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모임. 12월 초까지 총 6번의 번개 모임이 각각 다른 주제로 열렸음. (예: 홍보담당자들 접선ㄱㄱ?, 비영리 경력 3년 이하 활동가들 맛집ㄱㄱ?, 소규모 조직 활동가들 접선ㄱㄱ? 등)

수윳은 마지막으로 돌아가며 회고의 한 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다이어리에 적힌 “한 달 동안 가을밤의 D.MZ 어떠셨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답을 적습니다. 이 모든 대화와 환대와 연결은 참여자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들의 답을 직접 옮겨보며 4회차에 걸친 현장스케치를 마칩니다.

“제가 일하는 도서관은 비영리 기관이지만 사실 저 스스로가 비영리 활동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일부러 도서관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구요. **저는 스스로의 단단함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누다보니까 내 단단함을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나 할까요.** 지금 하는 일이 내게 잘 맞는구나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를 받아서 올 겨울도 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니까 퇴사하지 말고 살아 남아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참여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었었는데, 내가 참여자로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오고 싶구나 같은 게 보였어요. 여긴 무엇보다도 콘텐츠가 힘이대라고 느껴요.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해주신 분들 참 대단한 것 같고, 같은 콘텐츠 담당자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직장으로 옮기고 나서는 여러 일들을 풀지 못하고 있어서 머리가 복잡했는데, **여기에 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시원하고 깨끗한 기분으로 늘 집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 기분으로 가을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최종적인 소감은 신청하길 참 잘했는 거예요.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여길 왔는데, 결국 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네요.**”

“**진행해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다정해서 참 좋았어요.** 하나 하나 신경써주시는 것도 잘 느껴졌고, 무엇보다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프로그램 시작 전 부터 환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4주가 길게 느껴졌었는데 지나다보니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네요. 소그룹토록를 통해서 그룹원들과 다양하고 또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을밤의 D.MZ 스케치 - 4장

“ 퇴근 후 일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이 좋았어요. 매번 새롭게 나누는 주제들이 기대되었고, 비영리 섹터의 다양한 조직들에 대해 듣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가득 채운 인사이트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동참해 보고 싶단 결심이 생겼어요.”

“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도 좋았고,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커뮤니티는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아늑하게 안아주는 곳이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2030 활동가들이 외롭지않게 해주는 행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utro

너와 나의 무장해제가
만들 특이점

성과: 환대로 시작된 위로와 연결

2030 공익활동가가 기획한 2030 공익활동가 프로그램

2030 공익활동가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D.MZ(이하 ‘데미지’)는 사실 다음세대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위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재단의 2030 활동가들은 비영리 생태계를 지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막상 또래 공익활동가들과 연결된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점은 ‘번아웃’같은 단어가 주목받기 한참 전부터 비영리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목받아 왔음에도 말이지요.

“비영리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잘 활동해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뉴 플레이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뉴 플레이어들이 잘 생존하게 돕는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디에도 약간 부족하다는 게 (D.MZ를 시작하게 만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중간 리더십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꽤 있지만, 초년생들은 위한 프로그램은 잘 없거든요… 저희가 D.MZ를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음세대재단이 2030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필드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면 좋겠어요’였던 것 같아요.”

(기획자 인터뷰 중)

그래서 데미지는 2030 공익활동가를 위해 2030 공익활동가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또래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은 기획자이자 당사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었기에, 동일한 수요가 비영리 생태계에 분명히 있으리라는 짐작으로 ‘연결’과 ‘환대’, ‘해소’의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실제로 매 회 모두 신청자 수는 모집인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활동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교육도, 공모사업도, 다양한 콘텐츠나 행사도 있을 수 있지만, 데미지의 가장 큰 목적은 ‘2030 공익활동가들이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한끝 다른 한대

데미의 프로그램에 담긴 한 끝 더 나아가는 디테일한 장치와 노력들은 20~30대가 어떤 환경에서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언제 주도성을 보이며, 무엇을 염려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비영리 생태계의 오랜 가치인 ‘연대’가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에게는 어떤 경험과 장면으로 시작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30세대와 비영리, 공익활동이라는 큰 범주 위에서 모인 다양한 조직의 활동가들은 공익적 의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비영리 생태계에 대해 토론하거나, 각자의 조직을 대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시작하는 데미는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과 개인적인 경험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데미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데미에 선정된 후 오직 나에게만 발송된 웰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대다의 소통이 아닌 개별적인 소통을 통해 데미의 기획자들과 친밀감을 쌓고, 행사 공간에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매주 간단한 과제가 있고,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나눠갖습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마니또 미션도 주어지지요 (1회차 스케치 참조). 이런 장치들은 어떤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함께 이 익명의 일시적인 모임을 기꺼이 신뢰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다른 이들에게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만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윳, 호호, 모모 세 명의 운영진들이 만들어가는 분위기도 독특합니다. 이들은 참여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에 답하며 주도권을 열어 놓았습니다. 웰컴 키트와 페어웰 키트, 회차 별 주제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현장의 세팅, 매 회 새로운 메뉴를 기대하게 만드는 저녁 식사 차림상만 봐도 이 일에 많은 시간과 역량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에너지는 차별화 된 고급 서비스나, 빠르게 참여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낮설고, 적당히 따뜻하고, 참여자들 스스로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기꺼이 무장해제 후 함께 해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합니다.

위로와 힐링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데미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2030 공익활동가들이 느낀 긍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사후 인터뷰에서 가을밤의 참여자와 여름밤의 참여자들 모두 데미를 회고하며 ‘힐링’와 ‘위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꺼냈습니다.

“한 분이 하셨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메모장에도 적어놨었어요. 우리 비영리 활동가들은 행사 하나를 준비한다해도 기획안도 잘 써야 하고, 케이터링 맛집도 알아봐야 하고,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신경써야 하다고, 잘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맥락이었는데 ‘우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크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때 제가 저의 경력을 좀 많이 돌아보던 시점이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거지? 라는 고민이 드는 때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름밤 참여자1)

가까운 사람과는 오히려 나누기 힘들 수 있는 현재 솔직한 나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를 누군가 주의 깊게 경청해주는 것은 그 자체로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밤 참여자2)

“요즘에 누가 말하는 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줘요. 회사에선 이럴 일이 없으니까.”
(가을밤 참여자1)

공간과 다양한 장치들이 만든 현대의 분위기는 참여자들에게도 인상깊었던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앉을 때까지 공간적 느낌을 되게 따뜻하게 잘 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름밤 참여자2)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고 질문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느껴졌고, 무기창고 같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되게 편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여름밤 참여자1)

이런 좋은 분위기와 경험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어졌습니다. 여름밤의 한 참여자는 뎀지를 통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도 없고, 바로 위 사수와도 나이도 경력도 차이가 많이나서 사소한 걸 물어보기도 눈치보이고 일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을 털어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친하지만 다른 업체인 친구들한테는 몇 번 일과 관련된 고민과 걱정들을 터놓았지만 이 영역(비영리)을 잘 모르다보니 공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더이상 얘기를 꺼내지도 않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속으로 삭히다가 혼자 앓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뎀지로 통해서 일에 대한 고민이나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편하게 연락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참여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그들과 얘기하고 터놓으며 속이 후련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름밤 참여자3)

한편으로는 네트워킹적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되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성 상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편하지만,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공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고민이 있다기보다, 비영리 활동을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기 때문에 갔을 때 오히려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좀 내면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면의 장치들을 더 만들었다는 걸 1회차 때 느꼈고, 뒤로 갈 수록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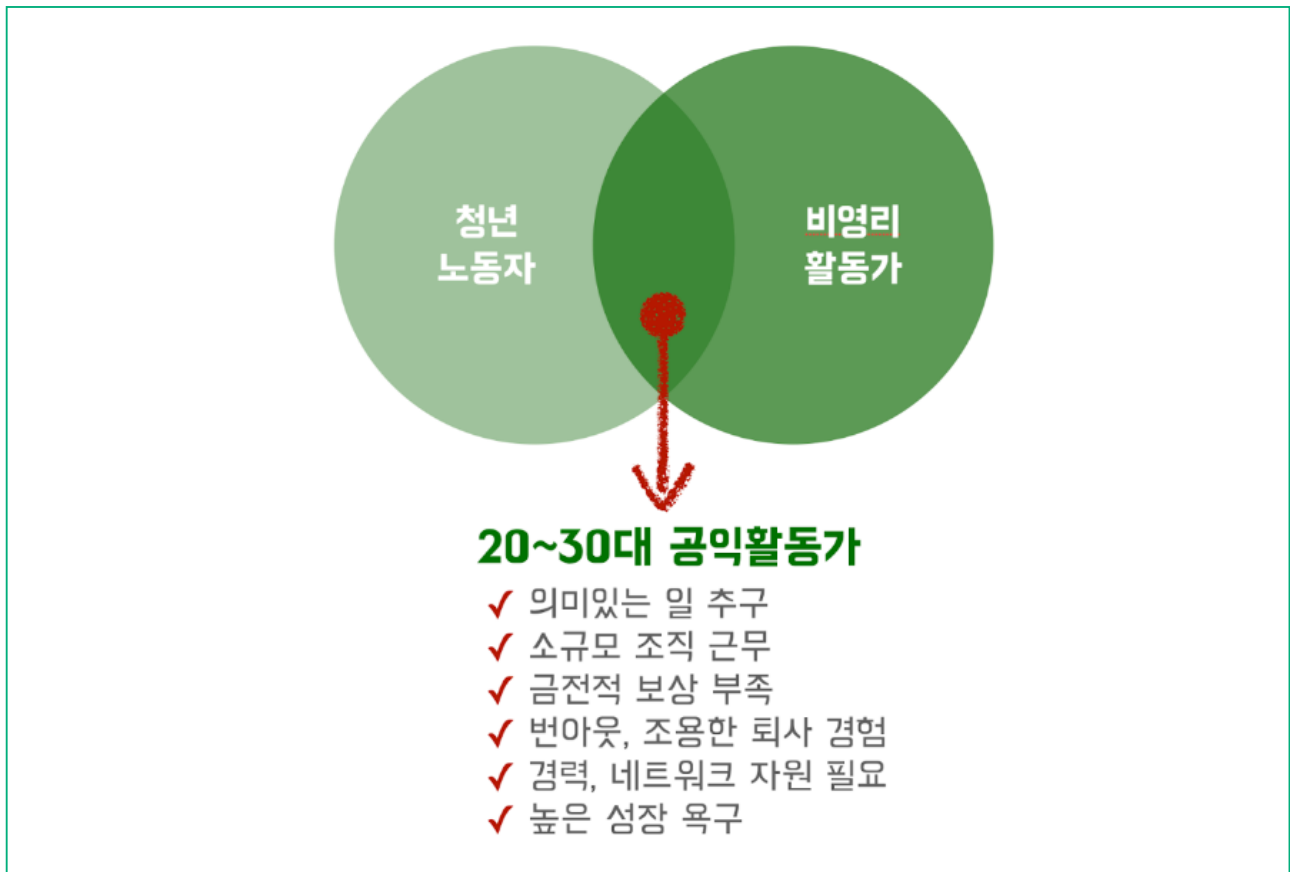
(여름밤 참여자2)

하지만 이는 ‘무장해제’에 초점을 맞춘 2030 공익활동가 프로그램인 D.MZ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안심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직군이나 연차별 모임 등 ‘동질성’을 강조하는 모임이 되어도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느슨하고 열려있는 진행방식이어서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만약 크고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다소 피상적인 네트워크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올해 뎀지에서는 **후속모임**을 참여자들의 기획과 의견을 통해 만들고, 외부에서 좀 더 가볍게 만나는 “**D.MZㄱㄱ?**(뎀지ㄱㄱ?)”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독서모임, 연극·뮤지컬 관람모임, 연차소진모임 등 자유 주제로 만들어진 후속 모임에는 여름밤, 가을밤 모두 참여자 절반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제언: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비무장지대로

청년 노동자이자 비영리 활동가



2030세대 공익활동가의 이중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체로 가슴이 벅차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없지 않다고 끊임없는 상호확증을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후기 글 중)

데미에 모인 2030세대 공익활동가들은 모두 청년 노동자인 동시에 비영리 활동가입니다. 청년 노동자에게는 커리어와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하고, 이들은 빠른 성장을 희망합니다. 청년 공익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조금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습

니다. 비영리 생태계의 특성 상 대체로 복지와 급여 수준이 낮은 30인 미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영리 활동가로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유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지위 상승보다 소셜미션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회차의 프로그램 중 참여자들이 가장 '무장해제'된 순간이었던, 번아웃에 대한 참여자들의 솔직한 대화에서 반복되어 등장한 장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더 이상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2030세대 공익활동가들은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을 때보다, 내 일의 의미를 잃었을 때 허무감과 함께 번아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30세대 공익활동가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내가 일하는 조직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믿음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믿음이 깨진 비영리는 더이상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경제적 보상을 감수할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 촘촘한 네트워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치'와 '변화'는 결코 혼자서 추구하고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에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용한 참여자 후기처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업계 동료의 존재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동시에 이는 그 자체로 내 일에 대한 통제력이기도 합니다. 당장 어떤 의제나 문제해결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일단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변화'를 위해 도전할 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0대 공익활동가들에게는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떤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오늘의 '나'는 존중받고 있고, 행복한지 묻고, 상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덤지의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청년 노동자보다 동료 네트워크에 대한 갈증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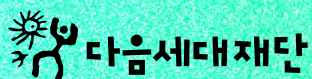
그러나 저연차인 2030세대 공익활동가들은 오히려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조직이 많다보니 일하면서 또래와 만나기는 어려운데, 학교 동기 등 비영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소위 '좋은 일 하는 특이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조직 안에서는 발언권과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업무량이 많다보니 조직 안에 매몰되어 오히려 네트워크를 넓히고 연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통의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잘러'가 되

는 방법이나, 큰 기업들에 대한 평판 등은 여러 콘텐츠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비영리에 곧장 적용되기 어렵고, 1인분을 넘어서는 업무를 해내며 다른 활동가를 만날 시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활동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립과 과로, 가치의 상실은 2030세대 활동가들에게 심리적 문제로 다가오며 청년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번아웃에 더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데미는 2030 공익활동가들의 고립과 번아웃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무장해제’라는 컨셉으로 환대와 위로의 틈을 내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생태계 내에서 이처럼 목적이 없는 가벼운 만남과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의 빈도가 찾아지는 건 활동가들의 상호지지 역량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목표하는 소셜 미션이 달성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D.MZ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태도, 장치를 포함한 소프트스킬이 동반될 때 의미있는 연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확산되는 환대의 문화가 아니라 한 번의 인상적인 이벤트로, 지속가능한 연결이 아니라 몇 차례의 인상적인 만남으로 끝난다면 “허허벌판에 선 작은 나무 한 그루”에게는 잠깐의 단비일 뿐입니다. 다양한 의제, 다양한 조직구조, 다양한 영역의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곁에 우연히 뿌리를 내리고 생태계가 되어갈 때, 그리고 비영리 생태계의 뉴 플레이어들을 위한 비무장지대가 더 촘촘해지고 넓어질 때, 낯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비영리 생태계 전체의 회복력과 역량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넘어 일상에 늘 존재하는 비무장지대가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2030세대 공익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 보고서를 마칩니다.

2022

D.MZ
REPORT



(우)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2
TEL. 02-2138-6855 FAX. 02-2261-1572
EMAIL. daumfoundation@daumfoundation.org
WEB. <http://www.daumfoundation.org>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daumfoundatio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daumfoundation>
D.MZ WEB comeon-dmz.org

